

순천부읍성, 원도심 랜드마크로 만든다

관광자원화 사업 국제공모 추진...관리용역업체 선정 1만㎡ 규모 250억원 투입 내년말 착공 2018년 완공

순천시가 중앙동과 향동에 걸쳐있는 옛 순천부읍성 터를 도심 속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 자연과 연계한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순천부읍성은 1430년 세종시절 축조됐으며, 지금의 향동과 중앙동 일부를 포함해 600여 년간 순천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국제공모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제공모 관리용역업체로 대구건축문화연합을 선정·계약을 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리용역업체는 국제공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설계 자문사 마린, 기획·홍보 홈페이지 구축, 국제건축가협회(UIA) 등록, 작품심사, 전시, 작품집 발간 등 국제 건축가의 참여 지원 및 국제심사위원 등 국제공모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내년 1월 공모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심사와 전시를 마무리 한 뒤 8월까지 설계에 이어 2016년 말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완공 시기는 2018년이다. 이 사업은 중앙동과 향동에 걸쳐있는 옛 순천부읍성터에 국비 75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순천시는 부읍성을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일본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 파리의 에펠탑처럼 한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순천부읍성은 1430년 세종시절 축조된 성으로, 지금의 향동과 중앙동 일부를 포함해 지난 600여 년간 순천의 중심, 호남 동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다. 현재도 부읍성 성곽터가 순천 원도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성곽길과 성내의 조선시대 골목길에 이야기를 입히고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중이다.

순천시는 과거 승주군 청사가 있었던 공간과 옥천 수변공간에 이르는 1만㎡의 부지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심광장과 창조관센터, 연자루 상점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접근성과 편의성 등도 높여 내기로 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자원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백운석 순천시 도시재생과장은 "단순히 과거 순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순천을 살아가는 세대들을 위한 공간이자 순천을 살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100년전 옥천 일대 모습.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개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 지원을 60%로

시,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시민 부담 덜게 상향조정

순천시가 주택 도시가스(LNG) 공급관 공사비 지원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는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지만, 일부 주민이 초기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13일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개별 가정에 가스 공급관 공사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에너지 자립 도시' 원년으로 선포한 순천시는 에너지 5개년 기본계획 중 핵심사업으로 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정

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도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는 2015년 9월 현재 44%에 불과한 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8년까지 70% 이상(45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에만 덕영동과 매곡동, 덕월동을 중심으로 총 600가구에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진행중이다.

내년부터는 하수관로 BTL사업 구간인 저전동 일원과 덕암동 등 주택단지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주택 공급 확대에 에너지비용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의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은 76%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세계적 건축가 멘디니 초청 16일 강연회

'폴리 정원' 전담대 컨셉 소개

순천에서 세계적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순천시는 "오는 16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겸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멘디니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쾌하고 행복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대부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순천만국가정원 폴리(Folly) 정원 전망대의 컨셉을 소개하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 및 작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Folly 정원은 사람이 들어가거나 쉴 수 있는 정원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정자도 Folly 정원에 포함된다.

시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영국의 찰스젠스가 설계한 호수정원과 함께 순천만국가정원을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

술관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전망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전망대 건립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 KEB하나은행이 전담대 기공식을 전담하면서 기부 채납을 위한 상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디자인을 맡은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순천의 아름다움 경관에 감동받아 이번 전망대 프로젝트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예술성이 돋보이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이 설치되면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황금로퍼상 3회, 유로피안건축가상,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 기사장 등을 수상했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네덜란드 그로닝거 뮤지엄, 일본 히로시마 항구 기념탑 만나 G, 프루스트 등 다수가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17일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 음악제 입장료 10만원에 시민들 "어이없다"

장소 무료 대여·후원금 4억여원 받고도 가격 비싸 불만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순천만국가정원 음악제'가 지역 현실을 무시한 높은 입장료 때문에 순천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홍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순천만국가정원 음악제 집행위원회'에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오는 17일 오후 6시 '순천만국가정원 음악제'를 순천만정원 잔디마당에서 개최하도록 했다.

음악제에는 티베트 출신 여성음악가 디첸 삭 닥사이, 그레미상 수상 가수인 조안 슈난도어, 한국의 소리꾼 강권순, 재즈 디바 나윤선, 테너 임태경과 뮤지컬 디바 차지연, 아카펠라 그룹 보이저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순천시민들은 지난 3년동안 순천만정원에서 열린 수백여 차례의 공연과 행사들이 무료였던 만큼 이번 음악제도 무료로 예상했지만,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된 입장료에 어이가 없다는 반

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순천시 장소대여에 따른 임대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음악제에 장소를 무료로 빌려준데다, 음악제 집행위원회측이 GS-현대제철·한국전력 등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후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순천시민은 "국가정원을 지정한 목적이 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쫓는 것은 아니냐"며 "음악회 티켓 불매운동 등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국가정원 축하 음악제를 한다고 해 무료로 장소를 빌려주는 것으며, 주최 측에는 정원 입장료(일반 4000원, 시민 2000원)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회 입장료 책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음악제 집행위원회 대표인 박용범 순천대 교수에게 휴대전화로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만국가정원 올 관람객 400만명 돌파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누적 관람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수가 평일 평균 1만4000명, 주말 평균 2만4700여명을 기록했으며, 이날 오후 400만8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달 5일 국가정원 지정일인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40일도 채 되지 않아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

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순천만국가정원에 관람객이 몰려든 것은 '국가정원' 지정과 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효과로 순천시는 분석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코레일의 자유여행 상품인 '내일로' 표의 전남 동부권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 근현대사 한눈에 보는 시정자료 전시회

14~30일 연향도서관 갤러리

순천시는 13일 "순천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제1회 순천 시정자료 전시회가 14일부터 30일까지 연향 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수집된 시정 자료의 전시를 통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주요 전시물은 순천시사, 읍면지 등 역사관련 간행물과 순천시 옛 사진을 시대별·주요 사건별로 분류해 전시한다. 특히 도농 통합 전 구 승주군 기념

품이 전시된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미래 역사로 남을 수 있는 순천의 향토사 관련 자료와 민간 부문 소장 자료, 타 공공기관 등의 자료도 수집해 관리할 방침이다. 시정자료 전시회 및 수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운영과(061-749-571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 및 지역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삼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정 자료 수집에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3) **275-7766**